

## 올 과학기술정책 총점검 과총, 11월16일 科技정책포럼 개최

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1월 16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올 과학기술계를 조감하면서 「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, 이대로 좋은가」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한다.

새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과학기술관련시책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포럼에서는 ▲과학기술정책 분야를 비롯 ▲출연연구기관의 역할 ▲과학기술교육 ▲산업체

의 기술개발 ▲과학기술풍토 등 5개분야로 나뉘 모두 7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이게 된다.

과총은 지난 10월 5일 과총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 포럼의 주제 및 분야별 연사를 결정하는 한편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월간 「과학과 기술」지에 전재하기로 했다.

분야별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.

▲과학기술정책(인력, 기초과학, R&D 투자, 행정체계, 제도 등)=임강원(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) ▲출연연구기관의 역할(출연연구기관지원시책중심)=백영학(전자통신연 정보통신연구관리단장) ▲과학기술교육(과학기술교육시책중심)·과학교육=김창식(국민대교수)·기술교육=지용업(동양공업전문대학장) ▲산업체의 기술개발(민간부문기술개발지원시책중심)=정용문(삼성종합기술원원장) ▲과학기술풍토(과학기술풍토조성지원시책중심)=이광영(한국일보기획위원)·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=이은용(서울대명예교수)

##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 盛了 科總회원 32개단체 69개팀 참가

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(회장 成樂正)는 10월 15일 올림픽테니스코트에서 제13회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.

과학기술인의 친선과 체력단련은 물론 과학기술단체간의 유기적인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제13회를 맞아 과학기술 관련기관 32개단체 69개팀이 참가해 노년부, 장년부, 청년부 및 과총찬조회원사로 구성된 특별 B부 등 4개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.

특히 올해엔 참가팀이 많아 장년부·청년부에 한해 폐자전을 실시, 1, 2위에 한해 부상을 수여했다. 각 부문별 우승팀은 다음과 같다.

〈노년부〉 우승:선우양국·이한민/준우승:김진영·김종수/3위:윤해봉·정인준

〈장년부〉 우승:유세영·조용호(대한생화학회)/준우승:변승봉·김남욱(한국전기연구소)/3위:홍성락·이동규(한국원자력연구소)·정완호·박승재(한국과학교육학회)

〈청년부〉 우승: 현근수·김태인(한국

토양비료학회)/준우승:이영철·김기식(한국원자력연구소)/3위:신태명·박호준(한국원자력연구소)·이재학·표희동(한국해양연구소)

〈특별 B부〉 우승:한영교·이형우(경인에너지)/준우승:박해선·채희병(삼성전관)/3위:이덕재·서민재(두산기술원)·임인식·고수남(삼성전관) 〈감투상〉 황쌍철(한국해양연구소) 〈미기상〉 임창식(과학기술처) 〈매너상〉 노재식(과총) 〈노력상〉 길창호(한국과학재단) 〈폐자전〉 장년부 1위:김수중·정호선(대한전자공학회)/장년부 2부:심상철·정안식(한국과학기술원)/청년부 1위:조연규·홍명표(한국전기연구소)/청년부 2위:서미원·민병철(국립중앙과학관)

◇ 제13회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 개최식 전경.



◇ 장년부에서 우승한 유세영·조용호 씨(대한생화학회)가 대회장인 成樂正 과총회장이로부터 우승트로피를 받고 있다.